

(2026년 9월 23일 수요일 5면)

“사과하십시오”



▲이강무 의원
(풍납1·2동·잠
실4·6동) 송파
구시설관리공
단 이사장 임
명 과정에서
드러난 집행부
의 소통 부재
와 의회 견제

기능에 대한 경시 태도를 지적하고자 한
다. 구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지방공기업

의 수장을 임명함에 있어 구민과 의회가
납득할 만한 검증과 설명 과정이 생략된
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. 또한 개원
식 등 공식 석상에서 의회의 정당한 의
정활동에 대해 불쾌감을 표출하고 부적
절한 언사를 한 것에 대해 책임 있는 공
식 사과를 촉구한다. 사과는 갈등을 매
듭짓고 다시 시작하기 위한 용기인 만
큼, 집행부가 의회를 대의기관으로 존중
하며 원칙 있는 견제와 건강한 협력 관
계를 복원해 나가길 바란다.